

#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미디어 전시 선보인다

### 이해관·주제관에 해양생태계 체험 콘텐츠 마련 해초 등 활용 먹거리·마스크팩·뷰티제품 전시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서 관람객들에게 오감 만족의 미디어 전시를 선보인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읍 해변공원 일원에서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를 주제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의 전시 콘셉트는 '블루 이노베이션'이며, 기후 위기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해조류'와 '블루카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공간은 크게 해조류센터를 단장한 '이해관'과 '주제관'으로 나뉜다.

전시 특징은 단순 정보 전달형이 아닌 감각을 자극하는 몰입형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점이다.

이해관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마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디어 터널 '해저로의 초대', 완도 바다의 하루를 프로젝트 맵핑으로 연출한 '완도의 해양'

관객 사진으로 인공지능(AI) 캐릭터를 생성해보는 '오션 스타', 직접 색칠한 그림을 스크린에 띄우는 '라이브 오션' 등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를 준비했다.

주제관 전시는 한 편의 영화를 본 듯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조류, 바다, 해양생태계 등을 3단계 쇼 형식으로 구현했다.

첫번째는 '바다의 위기'로 빙하 용해와 산호초 백화현상 등 지구 온난화로 파괴되어 가는 해양생태계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음 '기후 리더, 해조류'는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세계 해양과 대비되는 건강한 완도 바다를 대형 영상으로 나타내 인간과 바다의 공존, 미래 해양 환경의 가치를 전

달한다. '내일의 약속'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쇼는 해조류를 매개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완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해조류산업의 희망적 메시지를 담았다.

전시장 한편에는 해초 비빔밥 등 먹거리와 해조류 성분을 활용한 마스크 팩, 보습 크림 등 뷰티 제품, 친환경 생분해 종이와 빨대, 다화용 용기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일상 속 해조류의 다양한 쓰임새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장에서 해조류가 가진 해양 환경 보호, 기후 솔루션 등 놀라운 가치를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kn1831@gwangnam.co.kr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관 중 하나인 주제관 조감도. 사진제공=완도군청



나주문화재단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인력거투어와 한복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한복을 입고 전통 인력거 체험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 사진제공=나주시청

## '나주방문의 해'...음성 연계 인력거투어·한복체험 인기

### 10월까지 시민·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지역 상권 활성화

나주문화재단이 나주읍성 일원에서 운영 중인 인력거투어와 한복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인력거투어와 한복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주시와 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나주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후원해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전통적 매력과 원도심의 정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인력거투어는 전통 인력거를 타고 원도심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해 관광객

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한복체험 프로그램은 나주읍성 일원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공간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성인용과 아동용 한복을 고루 갖췄다.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인력거투어 이용객에게는 나주시상품권 5000원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력거투어는 금성관 옆 공용주차장 내 탑승장에서 진행되며 한복체험은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주정미소 일원에서 운영된다. 평일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콘텐츠"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원도심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 목포해경 해양시설 안전점검 6월 19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목포해양경찰서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목포해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지자체,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점검대상은 300㎞ 이상의 가류 저장 시설 16개소와 5만 이상 하역시설 1개소 등 총 17개소의 대형 해양 시설이다.

해경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21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시정 및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해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측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11@gwangnam.co.kr

## 화순, 지역 청년 소통 창구 가동...네트워킹 강화

### '청년카페 서포터즈' 발대

화순군은 최근 '2026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청춘오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또래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카페 서포터즈는 청년 정책과 홍보에 관심 있는 15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기간 동안 청년하우스 1층 공유카페를 거점으로 또래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청년하우스 1층 공유카페에서 개



화순군은 최근 청년하우스 1층 공유카페에서 '2026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청춘오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제공=화순군청

최민 발대식에서는 수행기관인 (사)전남노동연구원 서포터즈 지원 동기와 활동 참여 의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주요 역할을 안내했다.

서포터즈는 SNS와 현장 홍보를 병행해 청년들의 프로그램 접근성과 참여를 높이는 홍보 역할을 맡는다. 또 지역 홍보·마케팅, 청년 정책 제안·모니터링, 청년 네

트워킹·소통 활성화(월 1회 정기 모임), 지역사회 봉사활동·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카페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만큼 많은 청년이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진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주민 의견 반영...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진도군은 지난 28일 오후 1일원에 '2026년 진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 등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인근 마을, 공원과 연계성을 고려한 식재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식재 모듈'을 활용한 가로수길 정비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수목을 심고 반대편에는 관목을 심어 구간별로 특색을 살린 입체적인 경관을 조성한다.

군은 명품가로수길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경관 개선을 통해 가로수길의 명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기간 중 일부 구간에서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하나로 군내면 일원에 이팝나무와 홍가시나무(레드로빈)를 심어, 기존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조성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3399@gwangnam.co.kr

## 해남공룡대축제 안전 축제 만들기 '준비 착착'

### 내달 2~5일 공룡박물관·주차장·서틀버스도 확대

해남군이 5월 2~5일 해남공룡박물관에서 해남공룡대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공룡이 살아있다! 해남공룡대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공룡대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축제기간 3일 동안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정도로 대중성을 이뤘던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설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29일 김병성 해남군수 권한대행과 관계 부서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축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분야별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축제 관람객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총 2314명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황산면 소재지와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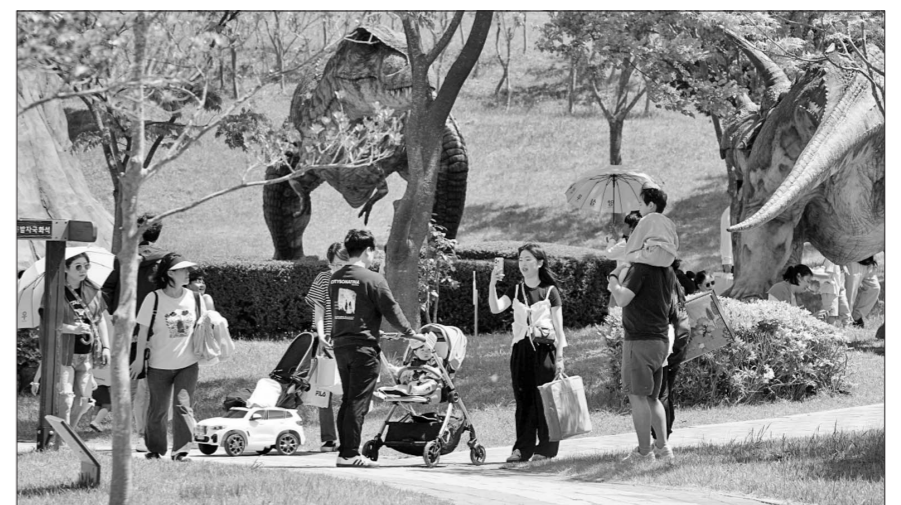
물관 사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람객들을 축제장 이동에 원활히 할 예정이다. 황산면 소재지 공룡박물관 진입로는 일방통행으로 운행되며, 셔틀버스만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게 운영을 통해한다.

셔틀버스의 운영은 5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5일에는 오후 6시까지이다. 셔틀버스는 해남읍 서림공원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코스와 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코스도 각각 운행한다.

현장점검에서도 체험부스가 운영되는 잔디광장의 기반 시설을 점검 점검했으며, 어린이공룡과학체험관과 공룡발자국 보호罩, 물놀이 체험장 등에 대한 사전 정비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피며 관람 편의 시설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병성 권한대행은 "이번 공룡대축제는 관람객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실편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과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해남공룡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 사진제공=해남군청